

2014광주비엔날레 주제 '터전을 불태우라(Burning Down the House)'

“실험성에 광주 역사 반영... 정체성 지킨다”



13일 2014광주비엔날레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제시카 모건 총감독.

“터전을 불태우라(Burning Down the House).”
내년 20주년을 맞는 2014광주비엔날레(2014년 9월5일~11월9일까지)의 주제다. ‘창조적 파괴’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 내년 비엔날레 주제는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버리고 ‘실험성’, ‘창조성’, ‘혁신성’, ‘역동성’ 등으로 대변되는 비엔날레의 정체성을 완성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작가·건축가·디자이너 협업 5개 전시실 ‘집’으로 변화

실험성 강한 퍼포먼스 강화... 중외공원, 전시공간으로

주제인 ‘Burning Down the House’는 1980년대 인기를 끌었던 뉴욕 출신 펑크록 그룹 ‘토크 헤즈(Talking Heads)’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다. 토크 헤즈는 콘서트 무대에서 서양 생활 방식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관객들에게 ‘집을 불태워라’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제시카 모건 2014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은 13일 열린 주제 설명회에서 “광주비엔날레가 추구해온 실험성과 변화정신, 광주의 역사 등을 반영해 정한 주제”라며 “영문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터전을 불태우라’라고 번역함으로써 과거의 것들을 파괴하는 과정을 통해

창조적 변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파괴와 소멸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의미로 낡은 체제, 오래된 관습을 버리고 실험적으로 무장한 비엔날레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뜻이 담겨 있다. 특히 주제에는 시위, 변화, 움직임 등의 의미도 내포돼 있어 민주와 평화, 인권의 진원지인 광주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비엔날레에서는 주제만큼이나

실험적인 작품들이 대거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토크 헤즈의 노래처럼 새로운 예술 형태에 대한 기록, 기존 체계에 대한 유쾌한 공격과 비판, 작가의 눈을 통한 역사의 재구성 등을 전시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작품 위주로 전시되던 이전 행사와 달리 극적인 퍼포먼스 등을 위주로 비엔날레를 꾸미면서 “불처럼 가장 역동적인 광주비엔날레를 만들겠다”는 것이 제시카 모건 총감독의 생각이다.
참여작가들은 노래 ‘Burning Down the House’의 내용에 맞는 무용, 안무,

음악 및 퍼포먼스 등을 전시기간 중 주요 모터브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설치, 퍼포먼스, 뉴미디어, 영상, 연극, 사운드, 건축, 문화 운동 등 다양한 분야가 아우러진다.
특히 ‘Burning(불타는·갈망하는·불지르기)’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도 퍼포먼스를 통해 선보인다. ‘불’은 이번 전시 기획의 중심이다. 개막식에서도 불을 소재로 한 다섯 개의 라이브 퍼포먼스가 무대에 오르게 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의 5개 전시실에도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다. 참여 작가, 건축가, 디자이너들의 협업을 통해 5개 전시실을 서로 다른 분위기를 가진 ‘집’이라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중외공원도 하나의 전시 공간으로 꾸며진다. 중외공원 안에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베니스비엔날레의 자르디니 공원과 같은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제시카 모건은 총감독은 “5·18민주화운동의 발생지인 광주라는 장소에 적합한 건설적이고 동시에 혁신적인 하나의 ‘문화 운동’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일상의 색채

서양화가 김유미 초대전 21일까지 제회갤러리

서양화가 김유미씨가 21일까지 제회갤러리에 초대돼 ‘impression(감명·인상)’전을 연다.
작가는 일상 속에서 발견한 독특한 인상이나 감명 등을 아름다운 색채 언어로 그려낸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그는 일상의 풍경 이미지와 캔버스를 함께 나열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작품들을 보여준다.
사실적 기록과 재현이라는 간극을 통해 느껴지는 시각적 긴장감과 더불어 감각적인 색채의 묘사는 실제를

넘어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
특히 작가가 그려내는 색채는 사진 속의 특정 부위에 집중, 단순화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절제 속에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색채 조합이 작품을 단순하면서도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홍익대와 동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김씨는 홍익대, 전남대, 호남대 등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문의 062-222-930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해피 크리스마스

박수용 재즈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 오늘 문예회관



박수용 재즈 오케스트라(지휘 박수용·사진)와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송년음악회가 1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호남신학대학교(총장 노영삼)가 주최하는 이번 연주회는 베니 굿맨의 재즈 명곡 ‘Sing Sing Sing’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Sing Sang Sung’으로 문을 연다.
이어 영화 ‘미녀와 야수’의 주제곡과 루이암스트롱의 노래로 익숙한 ‘What a wonderful world’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삽입곡인 ‘Moon River’와 ‘오즈의 마법사’ 수록곡인 ‘Over the rainbow’ 등을 들려준다.
재즈풍으로 편곡된 ‘산타 클로스 마을에 오시네’, ‘올드랭사인’ 등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와 우리에게 ‘소나무야’로 알려진 독일 민요 등을 만날 수 있다.
박수용 재즈오케스트라는 뉴욕에

서 수학 후 지난 2008년부터 호남신학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수용 교수를 중심으로 재즈 피아니스트 강윤숙, 색소폰 연주자 황태용·강철성, 더블베이스의 김성광씨 등으로 구성된 19인조로 구성돼 있다.
보컬리스트 최준과 강윤미, 테너 송태왕, 메조소프라노 김영실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62-650-156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문예술법인·단체’ 선정... 그린발레단 등 17곳

그린발레단 등 광주지역 17개 법인과 단체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전문예술법인인 (사)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 (사)한국국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사)한국농악보존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사)아시아문화예술협회, (사)한국재즈협회 광주지회, (사)선율 등 비영리법인 6개다.
공연단체는 그린발레단, 디딤돌, 광주내셔널필하모닉오케스트라, 국악그룹 ‘늘숨’, 문화복합방 탱크, K에듀댄스클럽

페니, 더싱어즈, 피들스트링오케스트라, JS뮤지션그룹, 강윤숙의 재즈여행, 극단 기본종은극장 등 11개다.
광주시는 창작과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고 있다. 해당 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품을 공개모집’할 수 있고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된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전문예술법인 단체’로 지정된 법인·단체는 모두 40여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무등지성 ‘길 위에서 길(道)을 찾다’ 강좌 16~30일

한해 끝자락 시린 겨울밤을 하얗게 수놓을 인문학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인문학 공동체 무등지성이 ‘길 위에서 길(道)을 찾다’를 주제로 16일부터 30일까지(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남광주 푸른길 공원 주차장에서 강좌를 연다.
16일 첫 강의는 최만민(조선대 정치학과) 박사가 ‘13여과의 대화, 중원을 향한 길’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23일과 30일은 이현주(전남대 영문

학과) 박사와 심옥숙(전남대 독문학과) 박사가 각각 ‘유토피아/디스토피아에서의 길 찾기-리틀리 스콧의 ‘블레이드 러너’, ‘길, 그 두려움과 탈림의 언어-괴테의 ‘이탈리아 여행기’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한편 문학, 철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대학강사가 참여하고 있는 무등지성은 광주의 대표적인 인문학 공동체로 지난 9월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문의 062-514-244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기적중얼가**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 대산프리모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목포(삼화) 274-5987
서 구 352-7788 목포(건영) 243-7463
남 구 676-7719 순 천 744-8605
북 구 512-7998 여 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